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서석원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Couple Characteristics and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Seok-Weon Seo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tholic Sa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KSC) 7차년도(2014) 자료를 토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153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으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부부특성은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넷째,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ouple characteristics and the father's childcare activities on school readines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7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KS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The data for 1,153 children aged between 72 and 29 months and going to kindergarten or nursery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each variable, a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and the model fit was excell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uple characteristics directly affected the school readiness of the children. Second, the father's childcare activities 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ird, the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directly affected children's school readiness. Fourth, the couple's characteristics and the father's childcare activities in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The result of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through bootstrapping showed it to be significant.

Keywords : Couple Characteristics,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nflict,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Warm Parenting Behavior, School Readiness

본 논문은 가톨릭상지대학교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ok-Weon Seo(Catholic Sangji Univ.)

email: smallstar2@hanmail.net

Received October 20, 2023

Revised November 21,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초등학교 입학 앞을 앞두고 있는 유아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마주하게 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생활이 영·유아의 신체적·심리적 욕구를 반영하여 하루일과가 비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학습의 효율을 위해 하루일과가 보다 구조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초등학교 생활의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응은 단순히 초기 학교생활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 전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 따라서 이 시기의 급격한 환경 변화속에서 유아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적응을 돕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학습준비도(School readiness)'가 있다[2].

학습준비도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협의의 개념으로는 학습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으로 한정하지만[3],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 뿐 만 아니라 사회정서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학교생활에 적응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4]. 특히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적응의 성패를 예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문제 예방과 함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6]들이 등장하면서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빈번히 그리고 오랫동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족변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밝혀져 있다[7]. 이에 가족변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가족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행동이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이라는 연구[5]와,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8] 등이 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확대되면서 아버지 관련 변인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관계에 대해 밝히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9]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10]은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등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변인 중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등 부부특성 변인들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우선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유아의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어머니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학습능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3]. 이를 통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가족관계 보다 부부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부부특성이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14,15]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부부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부부갈등이 있다. 부부갈등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유아의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부부관계는 유아의 올바른 발달을 가로막는 요인으로[16] 유아의 심리상태에 부모의 이혼보다 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공감과 격려에 대해 인식하며 오히려 무관심과 낮은 지지수준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고된다[18].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유아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건강을 저해하고[19] 학습준비도를 비롯해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특성의 또 다른 변인으로 결혼만족도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20] 결혼만족도 역시 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갈등에 빠지게 되면 유아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등 자녀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며 양육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1].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22] 유아의 성장 환경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중요해 지면서 양육 책임이 어머니에게 오로지 전가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수록 학습준비도가 발달한다는 연구[6]를 포함해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23]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24]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3,2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감소가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경우 유아의 행동에 부정적인 지각이 많아지고 이는 방임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26]. 반대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촉진되는 경향을 보인다[27].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요인들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변인들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부부, 어머니, 아버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사회의 가족 구조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로 변화하면서 어머니에게 전담되어 있던 양육의 역할과 책임이 어머니, 아버지 공동의 역할과 책임으로 분담되어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및 부부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구조방정식을 통해 부부특성,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가설 모델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부특성, 아버지의 양육분담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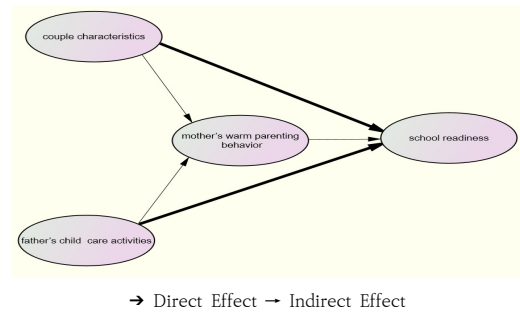


Fig. 1. Hypothesis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72개월에서 79월에 해당하는 만 5세 남아 775명, 여아 718명, 총 1,153명으로 구체적인 인구학적 배경은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Information of subject

		(N=1153)	
content	division	N	%
Child's gender	male	755	51.3
	female	718	48.7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429	29.2
	college	406	27.6
	university	550	37.3
	master	84	5.7
	missing data	4	.2
Fa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97	27.1
	college	299	20.3
	university	615	41.8
	master	156	10.6
	missing data	6	.2
	M(SD)	min	max
Child's month	75.09(1.42)	72.0	79.0
Mother's age	36.81(3.69)	25.0	53.0
Father's age	39.28(4.00)	25.0	56.0

2.2 연구도구

육아정책연구소의 7차년도 한국아동패널(PSKC)에서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연구도구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2.2.1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알아보기 [28]이 부부의 디스트레스와 이혼의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8개의 문장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부부갈등척도를 [29]이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의 Likert 척도로 수정한 것을 한국아동패널에서 일관성을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재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평정하며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신뢰도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 .923 이다.

2.2.2 결혼만족도

한국아동패널에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30]이 개발한 7점 Likert 척도를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 .933이다.

2.2.3 아버지의 양육분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분담을 측정하기 위해 [31]의 내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배우자가 함(1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2점)', '똑같이 함(3점)', '대부분 내가 함(4점)', '내가 함(5점)', '해당 없음(0점)'의 범위 안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를 목욕시킨다', '아이의 옷을 입혀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 .830이다.

2.2.4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

정하기 위해 [32]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연구도구를 활용하였다.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총 12문항 중 온정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문항은 6문항으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가운데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 = .868이다.

2.2.5 학습준비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33]의 도구를 번역 후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문항을 확정 후 활용하였다. 총 22개문항, 4개의 하위 영역인 사회정서 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 3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상상놀이를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회정서발달의 신뢰도 Cronbach's α = .736, 학습에 대한 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 .860, 의사소통 신뢰도 Cronbach's α = .844,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신뢰도 Cronbach's α = .813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유아 및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하였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적률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습준비도간 인과성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변인 중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2.13점(SD=.84), 3.20점(SD=.67), 3.80점(SD=.66), 3.64점(SD=.54)이었다.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하위변인인 사회 및 정서발달은 3.50점(SD=.39), 학습태도 3.50점(SD=.41), 의사소통 3.61점(SD=.47),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3.64(SD=.39)이었다. 측정 변인들의 왜도 절

대값은 0.56~1.41, 첨도 절대값은 0.24~.3.88로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아서 다변량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34].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부갈등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의 상관계수는 -.170(p<.05), -.160(p<.05), -.135(p<.05), -.164(p<.05)로 부적 상관력을 보여주었다.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학습준비도(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는 .153(p<.05), .143(p<.05), .134(p<.05), .144(p<.05)로 정적 상관력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학습준비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a	b	c	d	e	f	g	h
a	1							
b	-.674**	1						
c	.191**	-.227**	1					
d	-.300**	.266**	.073*	1				
e	-.170**	.153**	.050	.191**	1			
f	-.160**	.143**	.089**	.272**	.673**	1		
g	-.135**	.134**	.064**	.212**	.561**	.723**	1	
h	-.164**	.144**	.115**	.223**	.557**	.714**	.720**	1
M	2.13	3.20	3.80	3.64	3.50	3.50	3.61	3.64
SD	.84	.67	.66	.54	.39	.41	.47	.39
S	.77	-.84	-.68	-.27	-.56	-.64	-.94	-1.41
K	.36	.91	1.37	.79	-.38	-.24	.223	3.88

a=marital satisfaction, b=couple conflict, c=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d=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e=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approach to learning, g=communication, h=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p<.05, **p<.01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β	S.E.	C.R.	AVE
couple characteristics	marital satisfaction	.811			.77
	couple conflict	-.831	.081	-15.917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child care activities1	.676	.032	21.116	.66
	child care activities2	.757	.028	23.405	
	child care activities3	.778	.034	23.889	
	child care activities4	.755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warm parenting behavior1	.900	.032	31.531	.87
	warm parenting behavior2	.823	.029	29.879	
	warm parenting behavior3	.796			
school readines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711			.92
	approach to learning	.879	.047	27.408	
	communication	.828	.054	26.139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823	.045	26.014	

*p<.05, **p<.01

(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는 .050, .089(p<.05), .064(p<.01), .115(p<.05)로 사회 및 정서 발달을 제외하고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학습준비도(사회 및 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는 .191(p<.05), .272(p<.05), .212(p<.05), .223(p<.05)로 정적 상관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분담,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chi^2=218.441$, $df=59$, $\chi^2/df=3.702$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GFI=.972, NFI=.970, RFI=.960, IFI=.978, TLI=.971, CFI=.978로 모든 지수의 값이 0.90 이상으로 양호했으며 RMSEA 값은 0.48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을 판별하기 위해 요인부하량과 평균분산추출(A.V.E)를 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의 부하량을 측정할 결과 부부특성은 .811~.831,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676~.77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796~.900, 학습준비도는 .711~.879로 모두 .5 이상의 부하량을 보여 각 잠재변인의 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C.R(Critical Ratio) 값을 확인한 결과 1.96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5]. 그리고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 정도는 최소한 .50이상이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60~.92로 모두 .50이 넘어 집중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3.3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구조모형분석)

3.3.1 연구모형의 적합성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은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chi^2=218.441$, $df=59$, $\chi^2/df=3.702$,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지수의 적합도는 GFI, NFI, RFI, IFI, TLI, CFI 등의 지수값을 확인하였는데 지수값 모두 0.90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RMSEA값은 0.48로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나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Fig.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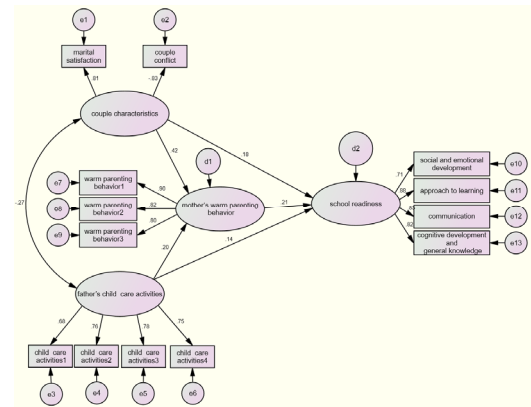


Fig. 2. Final model of the impact school readiness

3.3.2 최종모형 분석

부부특성, 아버지의 양육분담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검정하기 위해 기각역(C.R)을 확인한 결과 부부특성 및 아버지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이를 모두 더한 총효과를 구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부특성은 학습준비도($\beta=.176$, $p<.001$)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421$, $p<.001$)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분담 역시 학습준비도($\beta=.137$, $p<.001$)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for the final model

			<i>B</i>	β	<i>S.E.</i>	<i>C.R.</i>	<i>P</i>
couple characteristics	→	school readiness	.090	.176	.021	4.371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408	.421	.037	10.948	***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	school readiness	.050	.137	0.13	3.826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142	.204	0.24	5.876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school readiness	.109	.208	0.19	5.646	***
couple characteristics	→	marital satisfaction	1.000	.811			
		couple conflict	-1.285	-.831	.081	-15.917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child care activities1	.682	.676	.032	21.116	***
		child care activities2	.666	.757	.028	23.405	***
		child care activities3	.820	.778	.034	23.889	***
		child care activities4	1.000	.755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warm parenting behavior1	1.007	.900	.032	31.531	***
		warm parenting behavior2	.859	.823	.029	29.879	***
		warm parenting behavior3	1.000	.796			
school readiness	→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1.000	.711			
		approach to learning	1.290	.879	.047	27.408	***
		communication	1.411	.828	.054	26.139	***
		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1.179	.823	.045	26.014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mong variables of the final model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uple characteristics	→	school readiness	.176	.087	.263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	school readiness	.137	.042	.179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	school readiness	.208		.208
couple characteristics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421		.421
father's child care activities	→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204		.204

육행동($\beta=.208, p<.001$)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도 자녀의 학습준비도($\beta=.208, p<.001$)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특성 및 아버지 양육분담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하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mos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부특성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준비도($\beta=.087, p<.05$)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양육분담 역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습준비도($\beta=.042, p<.05$)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특성 및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특성인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모두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높이고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36], 부부갈등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습준비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11], 부부갈등이 유아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유아의 스스로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37] 등과 맥을 같이한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결국 부부의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부의 정서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8]와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유아의 학습활동에 긍정적이라는 연구[39]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지적능력을 포함한 인지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0]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렇듯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 인지발달, 및 학습활동 등 유아의 발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현대사회의 부부중심 가족구조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애정표현을 충분히 하고 아이의 행동이나 성취에 관심을 갖는 등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성취감과 자아존중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학습준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1]와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된다는 연구[12,13]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부부특성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습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 양육의 경우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온정적 양육은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42]와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 양육행동이 적게 발현되는 반면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주 나타난다는 선행연구[43]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더욱 자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어머니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다 만족스럽고 여유있는 부부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특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향상 시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역시 향상시켜 간접적으로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18,23,28],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8]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자주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논의를 종합하면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의 초기적용 뿐만 아니라 이후 학령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으로 견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등 부부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무엇보다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부부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모두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로 제한하였다. 유아양육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 비중이 동등해져가는 현대사회의 가족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인지하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모두 변인으로 투입하여 유아의 학습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J. Lim, "A study on effects of teacher's efficacy,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ren's peer play 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2, No.4, pp.153-175, 2020.
DOI: <https://doi.org/10.36431/JPE.12.4.8>
- [2] H. J. Lim, "A study on effects of mothers' parental competence parental anxiety, and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school readin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40, No.6, pp.291-315, 40(6), 291-315, 2020.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20.40.6.012>
- [3] J. A. Lee, J. E. Park, H. M. Chung, S. H. Yi, "The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school readiness, and scholastic competence: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No.4, pp.453-477, 2017.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4.019>
- [4] F. L. Parker, A. Y. Boak, K. W. Griffin, C. Ripple, L. Peay, "Parent-child relationship,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School Psychology Review*, Vol.28, No3, pp.413-425, 1999.
DOI: <https://doi.org/10.1080/02796015.1999.12085974>
- [5] Y. J. Park, O. B. Chung, "A Study on the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17, No3, pp. 37-54, 2010.
- [6] K. J. Cho, S. H. Ahn, "Effect of Home Environment Quality and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 Children", *Human Ecology Research*, Vol.53, No.3, pp.229-239, 2015.
DOI: <https://doi.org/10.6115/fer.2015.018>
- [7] k. Maxwell, R. M. Clifford, "School readiness assessment", *Young Children*, Vol.59, No.1, pp.42-46, 2004.
- [8] E. M. Yeon, H. O. Yoon, H. S.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s perceived depression, family functioning,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6, No.2, pp.243-269, 2016.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2.011>
- [9] N. R. Han, H. J. Moon, "The effect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home environment on children's learning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9, No.3, pp25-49, 2014.
DOI: <https://doi.org/10.16978/ecec.2014.9.3.002>
- [10] H. L. Jeong, "Exploring Father Variables Affecting School Readiness in Early Children: Applying the Parental Involvement Model",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9, No.3, pp.137-164, 2018.
DOI: <https://doi.org/10.18612/cnujes.2018.39.3.137>
- [11] E. M. Yeon, H. S. Choi, "Trajectories of Mothers'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nd Children' School Readiness, Self-esteem,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5, pp.344-352,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5.344>
- [12] M. R. Lee, "The influence of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on young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Creativity Research*, Vol.3, No.1, pp.139-160, 2013.
- [13] Y. M. Kim,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Mediating Effects of Paren-Child Interactions and Parental Attitud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2, pp.563-573,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563>
- [14] A. Sameroff, "A unified theory of development: A dialectic integration of nature and nurture". *Child development*, Vol.81, No.1, pp.6-22, 2010.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378.x>
- [15] K. M. Kitzmann,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 No.1, pp.3-13, 2000.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36.1.3>
- [16] J. S. Goldberg, M. J. Carlson, "Parents'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behavior in stable married and cohabiting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6, No.4, 762-777, 2014.
DOI: <https://doi.org/10.1111/jomf.12120>
- [17] S. H. Jeong, "Influences of Single-Parent Family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2, No.4, 156-186, 2011.
- [18] H. J. Choi, S. K. Cho, M. J. K, "The effect of the childcare characteristics shown by a father of an infant on the childcare stress of the mothe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1, pp.383-402, 2015.
- [19] M. J. Yim, H. J. Moon, "The Effect of Preschooler's

- Effortful Control, Parental Conflict, Parental Intelligence on Preschooler's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1, No.1, pp.159-179, 2014.
- [20] J. A. Lavner, T. N. Bradbury,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2, No.5, pp.1171-1187, 2010.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57.x>
- [21] M. H. Koo, Y. H. Lee, "Attachment Related Variables in Infants and Characteristics of Matern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1, No.4, pp.81-103, 2000.
- [22] K. H. Lee, Y. H. Kim, S. I. Shin,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n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17., No.1, pp.125-152, 2012.
- [23] S. W. Seo, D. K. Lee,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a child's social development: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5, pp.157-178, 2014.
- [24] H. J. Jun, S. K. Cho, M. J. Kim, H. J. Choi, "Belief in the value of children's father, grow, influence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infants development characteristics change factor",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2678-2688,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678>
- [25] J. K. Kim,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participation of husband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during transition to parenthood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and depressio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2, No.1, pp.1-17, 2014.
- [26] H. S. Choi, E. M. Yeon, "Actor and Partner Effect of Infant-Par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8, No.6, pp.5-30, 2014.
- [27] S. W. Seo, D. K. Lee,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Mother's Social Support, and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8, No.2, pp.135-158, 2014.
- [28] H. Markman, S. M. Stanley, S. L. Blumberg,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Family Court Review*, Vol.36, No.1, pp.95, 1998.
DOI: <https://doi.org/10.1111/j.174-1617.1998.tb00498.x>
- [29] H. S. Chung,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22, No.1, pp.91-101, 2004.
- [30] H. Chung,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Vol.95, No.3, pp.1015-1022, 2004.
DOI: <https://doi.org/10.2466/pr0.95.3.1015-1022>
- [31]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 - First Grade.
<https://www.nichd.nih.gov> (accessed Jan. 2007).
- [32] B. H. Cho, J. S. Lee, S. L. Hong,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Human Ecology Research*, Vol.37, No.10, pp.123-133, 1999.
- [33] D. A. Murphey, C. E. Burns,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Vol.4, No.2, pp.1-8, 2002.
- [34] P. J. Curran, S. G. West,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No.1, pp.16-29, 1996.
DOI: <http://dx.doi.org/10.1037/1082-989X.1.1.16>
- [35] J. H.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2006.
- [36] K. H. Lee, Y. H. Kim, S. I. Shinn,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n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17, No.1, pp.125-152, 2012.
- [37] P. T. Davies, E. M. Cummings,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16, No.3, pp.387-411, 199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6.3.387>
- [38] K. W. Kim, I.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Fathers and Childrens Social - Emoti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19, No.2, pp65-75, 1998.
- [39] N. R. Han, H. J. Moon, "The effect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home environment on children's learning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9, No.3, pp.25-49, 2014.
- [40] J. Kim, S. S. Lee, H. S. Shin(1995) A study on the father's role performance and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7(1), 47-55, 1995.
- [41] Y. M. Kim,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Parental Attitud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2, pp.563-573,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563>
- [42] G. W. Suh, "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s Peer-Play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The Mediated Effects of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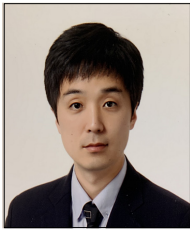
Vol.38, No.6, pp.79-91, 2017.

DOI: <https://doi.org/10.5723/kics.2017.38.6.79>

- [43] H.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of Mother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4, pp413-422,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24.413>
-

서 석 원(Seok-Weon Seo)

[정회원]



- 2012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5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영유아 발달, 부모교육